

■ 영상 택배 시즌 3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 여섯 번째 이야기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여행기 6부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영상택배가 이번 주로 마지막 회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지난 주에 이어 갈레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300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몰디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몰디브의 수도 말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택배의 유튜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t4gZrHSYw>

비아트릭스 포터의 삶을 조명한 영화 - Miss Potter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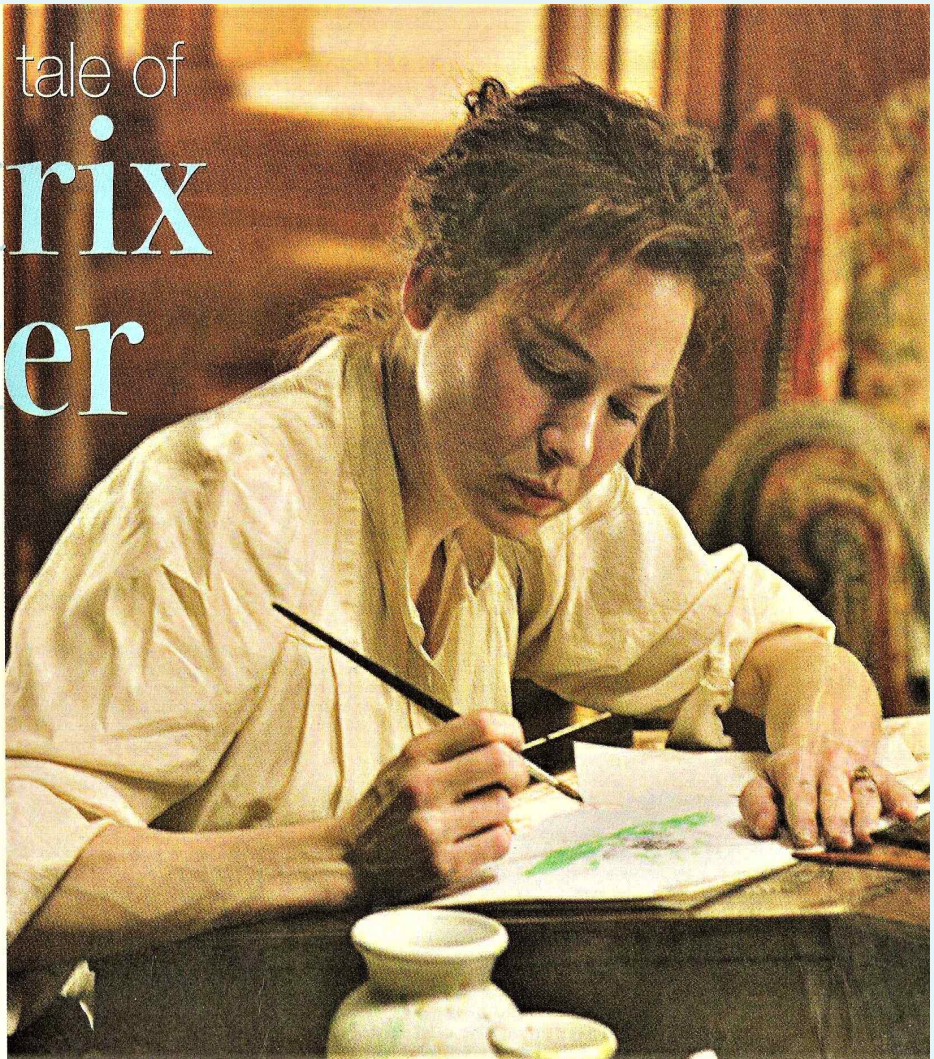
The secret tale of Beatrix Potter

Everyone loves the Peter Rabbit stories, but few know the truth about BEATRIX POTTER. Now a new film reveals her as a sad and lonely woman who wrote in code to disguise her feel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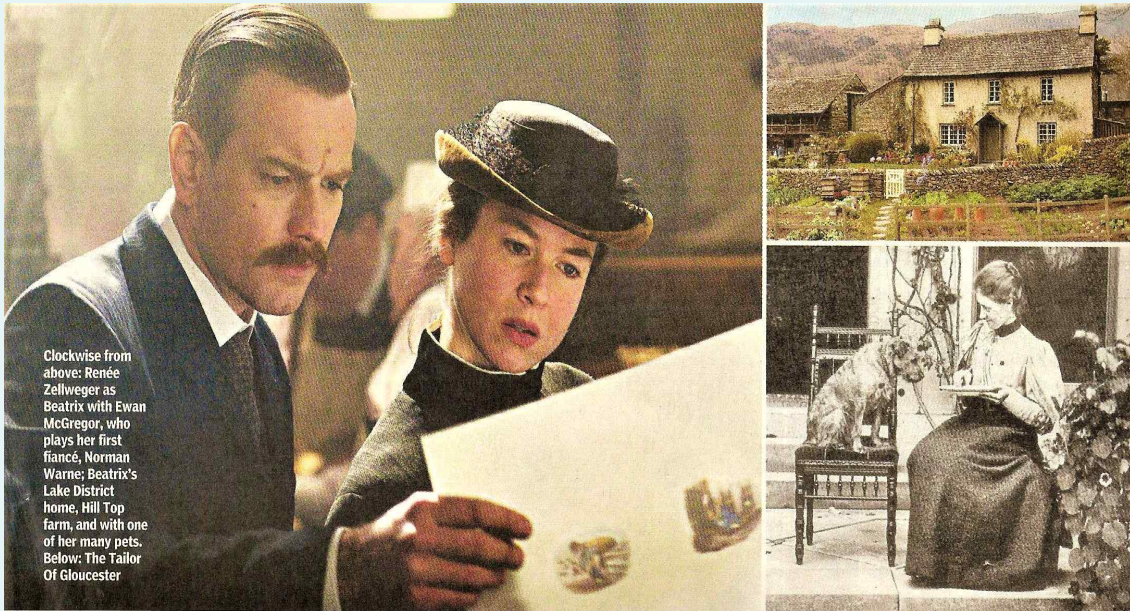
By MARY GREENE

A young woman locked away in an imaginary world sits down to paint a familiar scene. Before our eyes, the mischievous Peter Rabbit comes to life, racing across Mr MacGregor's garden, losing one shoe and then another before snaring himself in a gooseberry net with the buttons of his blue jacket.

Those scenes are now, of course, a national treasure, a cornerstone of childhood across the decades. But, in fact, they hide the desperate sadness of Peter's creator, a lonely girl locked away from life by over-protective parents who refused to let her grow up.



영국 저널이 실린, 영화 <Miss Potter>의 한 장면, 한국에서도 상영되었던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섬세한 내면을 실감 있게 연기한 배우 Renee Zellweger.



Clockwise from above: Renée Zellweger as Beatrix with Ewan McGregor, who plays her first fiancé, Norman Warne; Beatrix's Lake District home, Hill Top farm, and with one of her many pets. Below: The Tailor Of Gloucester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Ewan MacGregor.

내가 몇 년 전 호수지역에 있는 그녀의 집 '힐탑'에 갔을 때 영국에서 발행된 저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영화에 대해 소상히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호수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는 우선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또한 왜 그녀가 도시의 부유한 생활을 뒤로하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 호수지역을 즐겨 찾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풀고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영국의 계관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를 비롯하여 옥스퍼드 교수 존 러스킨, 내셔널 트러스트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하드윅 론슬리 신부 등이 호수지역의 자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들은 자연을 통해 얻은 감동을 글로 또는 그림으로 이를 풀어내고 있다.

호수지역에는 문인들의 수채화가 유명한데, 이는 이곳의 경치가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전시관에 걸린 그림들은 풍경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그라스미어(Grasmere)의 한 화방에 들어가 보니 그림 재료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그림 그리는 이들이 탐낼 만 한 것들이었다.

아무튼 영국의 호수지역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미 네 차례나 다녀온바 있는 필자에게 또 유럽의 가보고 싶은 곳을 말하라면 주저 없이 호수지역이라 말할 정도이다. 나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은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쳤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비아트릭스 포터도 이 대열에 서게 되었다.



비아트릭스 포터의 집 '힐탑' 전경, 그녀는 이곳에서 수많은 동화를 창작하였다.

비아트릭스 포터는 호수지역의 자연에 매료되어 아예 이곳으로 이사하였고 힐탑(위의 사진)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화작가로서 화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물론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자연에서 위로를 받았고 동화의 세계를 구축하며 이를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명성과 부를 동시에 쌓았다. 이 무렵 그녀는 문화유산 보존내셔널 트라스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당시 자연과 및 문화유산 보존 단체인 내셔널 트라스트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호수지역이 변함 없이 오늘날까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나도 호수지역의 경관에 감동하여 아름다운 그곳을 스케치 하였다.